

할로영산(漢拏靈山)서 솟아나신 백관님(百官-)， 강남천조국(江南天子國)서 솟아나신 도원님(都元師)， 칠오름¹⁾서 솟아나신 도병서(都兵使) 삼위(三位)는 예촌본향(禮村本鄉)이고， 불목리(甫木里) 조노기²⁾ 본향(甫木本鄉)은 할로영산(漢拏靈山) 서남목(西南-)계 백록담(白鹿潭)서 솟아난 브르못님³⁾ 뵈네다.

브르못님 부인(婦人)은 신중부인 뵈시는다. 흐를날은 부인님을 거느리고 백록담(白鹿潭)서 초초이초(次次二次) 느려오다 제완지홀⁴⁾엘 오란 보니⁵⁾ 칠오름에 청지에(靑蓋瓦) 흑지에(黑蓋瓦)를 쳐 시난.

『어떤 어른이 앓아신고?⁶⁾』

부인은 퇴평(吐坪)⁷⁾ 허칫(許氏宅) 과수칩(寡嫂家)의 가 머쳐두고⁸⁾ 당신 혼자 칠오름 청지에(靑蓋瓦) 친 딜 가 수작(酬酌)을 허연 보니， 훈 어른은 할로영산백관님(漢拏靈山百官-)이고， 훈 어른은 강남천조도원님(江南天子都元師)이고， 훈 어른은 칠오름도병서(-都兵使) 뵈네다.

식 어른이 앓안 바독장기 뛰단⁹⁾ 통생명(通姓名)을 허연 보니， 나(年歲)은 조노기본향(甫木本鄉神)이 우이고¹⁰⁾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알이난，¹¹⁾ 닉 어른이 타합(打合)홀 때， 백관님(百官-)이 말씀헐뵈

『우리가 바독을 뛰어 싱전(勝戰)에 떨어지건 아시국(弟)을 삼곡 싱전(勝戰)이랑 우을 삼기로 하자.』

『어서 걸랑 그리 하자.』

닉 어른이 앓아서 조노기본향(甫木本鄉神)헐고 바독을 두는다. 훈 좀 두 좀 뛰는 게 조노기한 집이 이길 듯허야 가니，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서이가¹²⁾ 후원(後援)을 허연 이깁데다.

조노기본향이 말씀헐뵈

『내 바독은 졌수다. 어딜로 가쿠가?¹³⁾』

『나는 성(兄)의국이니 우(上)을 츠지헐겠노라.』

허연 예촌(禮村) 배야기뵈뵈¹⁴⁾ 가 좌정(坐定)헐고 조노기본향은 불목리(甫木里) 조노기로 느려

1) 서귀읍 상효리(西歸邑上孝里)의 악명(岳名).

2) 보목리(甫木里)의 속칭.

3) 브르못도와 같음.

4) 서귀읍 상효리(西歸邑上孝里)의 지명.

5) 와서 보니.

6) 앓았는가.

7) 서귀읍 토평리(西歸邑吐坪里).

8) 맡겨 두고.

9) 두다가.

10) 위이고.

11) 말이니까.

12) 셋이가

13) 가겠읍니까.

와 좌정 흡데다.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식 어른이 앓아 바독을 뛰엄더니¹⁵⁾ 미령박씨(密陽朴氏)가 앞으로 지나
가난

『너는 어떤 인간이냐?』

『난 미령박씨(密陽朴氏)웨다.』

『우리덜이 좌정(坐定)홀 딜 알 수가 엇겠느냐?』

『나도 이제사 오는 질이라노난¹⁶⁾ 잘 모르오나 알아보겠읍네다.』

알아봐 와서

『비야기웁바이 좌정홀 만흡데다.』

『그러면 그디 내 좌정홀 테이니, 당하니¹⁷⁾로 그영허여그네¹⁸⁾ 상여촌(上禮村) 하여촌(下禮村)
상여돈(上孝敦) 하여돈(下孝敦)을 츠지허여근¹⁹⁾ 버올어 먹으라.』

으 ○ 허여²⁰⁾ 미령박씨(密陽朴氏)가 데데손손(代代孫孫) 당하니로 워히는 신당입네다.

조노기한집(甫木堂神) 브르몏돈 부인 신덜²¹⁾ 퇴평(吐坪) 느려와 보난, 예펜(女便)이 종경내²²⁾가
과히 나,

『무슨 일로 존경내가 과히 나느냐?』

『오줌(小便)을 누레 갓단 돛게길²³⁾ 하도 먹고파네 물멍지²⁴⁾를 손에 감안 도새기²⁵⁾ 조롬²⁶⁾으로
디물안²⁷⁾ 간헐²⁸⁾를 등기여²⁹⁾ 내여 먹으난 먹은간 찌간³⁰⁾ 허연게³¹⁾ 종경내가 남네다.』

『투더럽다. 나광 ㄱ찌³²⁾ 좌정(坐定)히지 못한다. 너는 알뜨르(甫木) 갈 수가 엇이니 퇴평(吐坪) 막
동골³³⁾로 좌정(坐定)허영 산쟁이신디³⁴⁾ 설레산적³⁵⁾을 얻어먹으민 니발 탄 것³⁶⁾ 잘 먹게 뵈 거다.』

14) 남원면 예촌(南元面禮村)의 지명.

15) 두고 있더니.

16) 길이라 놓으니.

17) 당에 매인 심방. 그영신내와 같음.

18) 그영하다=당(堂)에 전속하여 사제(司祭)하고 지키고 관리하다.

19) 차지하여서.

20) 이리하여.

21) -한테를. 있는 데를.

22) 동경내와 같음.

23) 돼지 고기를.

24) 명주(明紬)의 일종.

25) 돼지.

26) 꿩무니. 밑구멍.

27) 집어넣어.

28) 간헐(肝膽).

29) 당기어.

30) 먹은 듯 쓴 듯.

31) 하던데.

32) 나와 같이.

33) 토평리(吐坪里)의 지명.

34) 사냥꾼한테.

35) 서슬 산적(散炙).

36) 네발동물의 고기.

허연 퇴평(吐坪) 막동골 좌정 흡데다.

한집님은 새금상뚝님애길 소첩(小妾)을 삼았는디, 뚝님애긴 어심이 세고³⁷⁾ 투심이 세여³⁸⁾ 아눔
궂득³⁹⁾ 금책(金冊) 종이 궂든⁴⁰⁾ 서붓⁴¹⁾ 일천장(一千張)의 베릿돌(硯石) 삼천장(三千張)의 진연춤⁴²⁾
상단궂(上丹骨)엔 상벨문셀(上別文書) 받고 중단궂(中丹骨)엔 중벨문세(中別文書) 하단궂(下
丹骨)엔 하벨문서(下別文書), 낳는 날은 생산(生産)을 받고 죽는 날은 물고(物故)를 돌리고⁴³⁾ 저
승 이승(彼世此世) 오가일통(五家一統)을 좇지하야, 아길 나민⁴⁴⁾ 여러불법도(如來佛法-) 삼성(産
神)으로 늑려 그늘루고⁴⁵⁾ 열다섯 십오세(十五歲)가 넘으면 호옹지웅하니⁴⁶⁾ 홍포사리⁴⁷⁾ 석자오치
(三尺五寸) 일곱자(七尺) 통개걸이⁴⁸⁾ 받아 그늘루는 한집입네다.

조노기 브르뭇돈(浦木本郷男神) 산쉐털(山牛毛) 흑전립(黑戰笠)에 운문대단(雲紋大緞) 알을 답
저, 주웅새돌림⁴⁹⁾ 풀독⁵⁰⁾ 상미⁵¹⁾ 허우레비 허튼짓⁵²⁾ 냄비단(藍緋緞) 늘짓⁵³⁾ 궁(弓)이 바듯⁵⁴⁾ 활
을 받고 궁이 바듯 쌀(矢)을 받고, 혼 쌀궂을 털뚝리민⁵⁵⁾ 일만군스(一萬軍士)가 도숙어들고⁵⁶⁾ 혼
쌀궂을 털뚝리민 삼천군병(三千軍兵)이 도숙어나고 브르뭇도웨다.

- 西歸邑 下孝里 男巫 姜太玉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735-738.

37) 우김이 세고. 억세고.

38) 투심(妬心)이 세어.

39) 한 아눔 가득.

40) 한 종이 가득한.

41) 붓(筆). 「서-」는 조율음(調律音).

42) 진현(眞玄)참먹.

43) 달게 하고.

44) 낳으면

45) 도와 키워 주고

46) 혼인하니의 뜻. 「호옹지웅」은 신랑 신부가 행차할 때 하인들이 「호오웅」하고 내는 소리.

47) 혼서함(婚書函) 보자기. 곧 신랑집에서 혼서지(婚書紙)와 채단(采緞)을 넣어 보내는 함을 싸는 붉은 보자기.

48) 동개(筒箇)를 걸어매는 끈.

49) 주홍사(朱紅沙) 돌림. 「돌림」은 회장(回裝).

50) 팔찌.

51) 象毛

52) 허울허울 흐트러진 것. 전립(戰笠)의 상모를 표현한 말일 듯.

53) 전립의 갓양태를 장식한 것인 듯.

54) 빠듯하게.

55) 쏘으면의 뜻.

56) 도루 숙어들어오고.